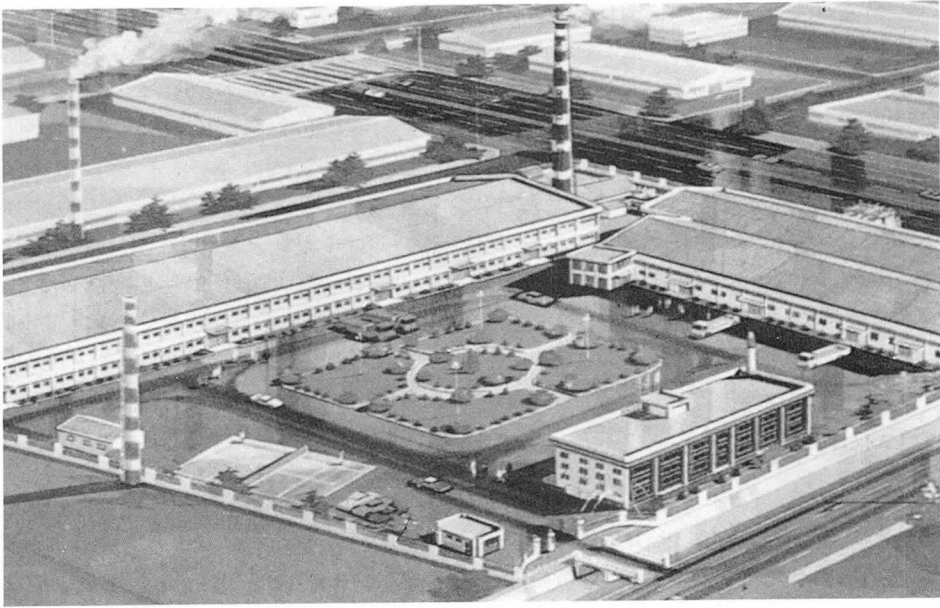


水災 어떻게 넘겼습니까?



지난해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전 임직원의 피땀어린 노력과
수재보험금을 받아 재기한
한국후지카공업(주)를 찾았다.

우리는 마스크미나 각종 매체를 통해 항상 크고 작은 사고들을 듣고 보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고들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전예방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그렇지만 하늘이 내린 재난이란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사전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대비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84년 9월 뜻하지 않은 집중폭우로 공장건물과 제품이 침수되어 약1억원의 피해를 입고 수재보상을 받은 국내 최대의 석유가스 연소기 및 주방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후지카공업주식회사(대표 金東龜)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회사개요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에 위치한 연건평 15.096㎡규모인 이 회사는 지난 67년 창업 이래 우리의 일상생활에

취재/조 태 엽 <홍보 2 과>

필요한 석유난로, 풍로등 석유연소기와 가스렌지, 가스난로등 각종 가스연소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후지카는 또 전기보온밥솥, 밥통, 보온병, 믹서등을 생산함으로써 보다 풍요한 내일을 가꾸기 위한 생활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창립과 동시 우수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해 착실히 성장해 온 한국후지카는 현재 대원전기산업(주), 한국린나이(주), 한국타이가(주)등의 방계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그야말로 동업계에서는 짝짱한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68년에 일본후지카와, 그리고 74년에 일본조일 금속공업(주)과 각각 기술제휴를 했으며 전기보온밥통과 석유풍로, 강제드럼등은 76년과 77년에 이미 KS표시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77년 12월 수출의 날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82년에는 신기종 석유난로인 KSF-225A형의 개발로 미국의 UL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3년에는 IC전자회로가 첨가된 석유난로 불루로타리FKH-1.600형과 레저크린FKH-8000형을 내놓았으며 84년도에는 최첨단 전자기술이 낳은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된 흰히타FKH-3600FH형을 개발하여 호평리에 보급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취사기구 및 난방기구에서 보온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속에 호흡하면서 보다 안락한 환경을 추구해온 한국후지카는 앞으로도 생활과 조화되는 ITEM이 무엇인가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9백여 임직원이 뚝뚝뚝 소비자들을 위한 편리하고 유익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한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전임직원의 방화의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연소기제조업체의 선두주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항상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며 중간 관리자급이상으로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매일 체크하는등 그날의 이상유무를 직접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사내 방화체제가 철저히 확립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해상황과 보험

지난해 9월 1일 경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곳 인근주택과 공장건물들이 하나 둘 침수되기 시작하자 한

국후지카의 전종업원들은 피해를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대작전을 펴야만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전종업원들의 간절한 소망도 아랑곳 없이 마침내는 생산제품을 비롯한 기계시설과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등 공장전체가 물바다로 변해버렸다.

순식간에 밀어닥친 이 엄청난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韓相基 생산관리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물난리를 당하고 보니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전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오늘의 후지카가 잠간사이 수마에 휩쓸린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지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비가 그치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사장님을 비롯한 전종업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철야배수작업을 벌인 끝에 3일후에는 정상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면된다”는 교훈을 몸소 터득한 우리 후지카가족은 더욱 굳은 각오로 직장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韓부장의 얼굴에는 비온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표정이 역연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비무환”이란 말이 되새기게 된다. 이 공장은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수해를 입었을 때는 미처 보험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으며 오직 공장을 정상가동시키는 데만 전념했다. 그러던중 사장으로 부터 보험계약현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알아본 결과 84년 1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풍수재에 의한 손해도 보상해준다는 특별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보상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보험이란 사후대비책으로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한다. 결국 보험이 불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아직도 현사회에 부분적으로나마 생존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행복된 삶과 번영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함께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